

광주비엔날레, 코로나 팬데믹 뚫고 세계의 관심 속 '출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행사가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렸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5월9일까지 39일간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개최된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어제 개막식 ... 철저한 방역 지침 속 5월 9일까지 39일간 대장정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주제 ... 국립광주박물관 등서도 열려

두 차례 연기됐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뚫고 조심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16면>
지난 31일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9일까지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 탓에 베니스건축비엔날레 등 전 세계 대형 예술축제가 대부분 연기된 상황에서 개막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로 관심을 모았으며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전시장을 오픈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데프네 아야사나타사 진발라 공동 예술감독이 기획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

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 주제전과 광주정신을 탐색한 GB커미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 '메이투데이', 국내외 미술관을 연결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결합돼 광주를 동시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확장시켰다.
이날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프레스 오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과 국내외 취재진이 몰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내 취재진과 외신 한국 특파원만 참여해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됐으며 방역로봇 등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주제전에는 40여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시작 등 모두 450여 작품을 선보였다.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무료 개방된 전시실은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작품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각각의 컨셉과 디자인으로 전시공간을 구성,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한 2·5전시실에서는 치유와 회복, 페미니즘, 민주화 연대 등의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보였다.
주제전의 또 다른 전시공간인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개관 85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거문고를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한 주디 라들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이불 작가 등이 참여한 GB커미션과 5·18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전이 열린 옛 광주국군병원에선 광주환경의 현상이었던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GB커미션의 또 다른 작품은 광주문화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선보일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용섭 시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황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자산인 광주비엔날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공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원형 그대로 복원 역사적 진실 알리는 공간으로" 황희 장관 문화전당 방문

황희(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1일 옛 전남도청을 찾아 "공공력이 망가트린 옛 전남도청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야 또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전남도청복원실무협의회 복원지킴이' 회의실을 찾아 옛 전남도청 복원을 주장하며 1667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5·18 유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적인 정신과 철학은 5·18이며, 5월 정신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옛 전남도청"이라며 "이곳은 어마어마한 상징이 깃든 공간인 만큼 유산으로 남겨 당시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공공력이 무참하게 옛 전남도청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옛 전남도청은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옛 전남도청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복원추진단의 예산을 두배로 올렸고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옛 전남도청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고층승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 노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노조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잘 해결될 것이다"며 "문화전당을 방문한 이유가 직원들을 챙기려고 온 것인 만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풀기...내일 범정부협의체 가동

총리실 주관, 기재부도 참여
'기부 대 양여' 방식 보완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오는 2일 본격 가동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해결책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기재부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광주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이전 비용과 이전지역 지원을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 가능성도 열려 '문대

통령의 임기 내 해결 방안 마련'이나 '연내 해결책 마련'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31일 정세균 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이 2014년부터 표류하는 동안 동쪽에서는 대구·경북이 군 공항 이전을 하면서 공항 문제를 해결했고, 동남권에서는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였다"면서 "광주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꾸리고 단장인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포함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오는 2일

첫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주무 실장과 광주·전남·남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범정부 협의체의 구성을 해당 장관급으로 올리며, 광주시장·전남지사도 참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농림부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정 총리는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지자체가 합의하고 사·도민이 공감대를 만들도록 조정 역할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겠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셔야 이 숙제를 풀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입장은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며 이것을 별 무리 없이 잘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만나 공동 환영문을 내고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이전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지만,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로 인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막대한 자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해결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동계·농민 춘투 심상치 않다 ▶6면
KIA, 오늘 엔트리 완성...월리엄스 선택은?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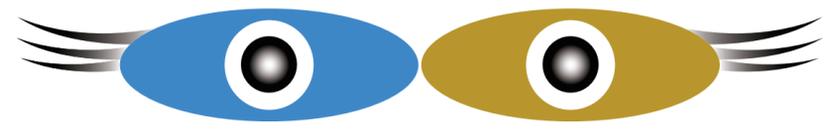


제13회 광주비엔날레

13th GWANGJU BIENNALE

2021.04.01.-05.09.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극장,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주최·주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Venues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Gwangju National Museum, Gwangju Theater, Horanggasy Artpolygon
Hosts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www.gwangjubennale.org